

강진 초록민음, 작년 매출 161억...전년비 2.1배 '굉충'

포장재 지원·유통망 확충 정책...반값여행 시너지 효과도 강진원 군수 "지역 농특산물 홍보·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강진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추진 중인 농특산물 직거래지원센터 '초록민음'이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22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초록민음의 총매출액은 161억원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1배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군 직영 소평물 '초록민음강진'이 15억5천900만원의 매출을 올리며 전년 1억3000만원 대비 15배 성장해 주목받고 있다.

초록민음은 강진쌀, 직거래사업단, 로컬푸드 등을 통해 지역 농산물 판매를 활성화하는 플랫폼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강진쌀은 초록민음강진 소평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과 협업을 통해 매출이 대폭 증가했다. 2024년 강진쌀 총 매출은 99억7천600만원으로 전년 동기 33억4천400만원 대비 198% 증가한 수치다.

이 중 초록민음강진 소평물을 통한 매출은 4억3천800만원으로 6천738포대가 판매됐다. 제주도 물류비 지원 등 효율적인 유통 체계를 통해 12만4천871포대 판매로 58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러한 성과는 군의 물류비 지원과 신규 입점업체 발굴 등 효율적인 유통 체계 구축 덕분에 가능했다. 로컬푸드 분야에서도 강진농협 파머스마켓과 강진완도축협 하나로마트에서 각각 33억8천300만원과 9억1천300만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이는 군에서 포장재 지원과 각종 보조사업을 통해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돕고, 소비

자들에게 신선한 로컬푸드를 제공한 결과로 분석된다. 직거래사업단은 대도시 행사와 지역 축제를 연계해 매출 2억8천600만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1배 성장했다. 이러한 성과는 군의 효율적인 지원 정책과 관광객 유입 정책인 '강진 누구나 반값여행'과의 시너지 효과로 풀이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초록민음은 단순한 판매 사업이 아니라, 지역 농업인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종합적인 플랫폼"이라며 "앞으로도 강진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전국에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진=정영록기자



관광객들이 강진군 초록민음 직거래지원센터 앞에서 손을 흔들며 즐거워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나주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 육성 기반 다진다

도·한국교통안전공단과 '이차전지 산업 육성' 협약

나주시가 탄소중립 시대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 각광받는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술 개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나섰다. 23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전남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박창환 전남도 경제부지사, 안상현 나주시 부시장, 오태석 한국교통안전공단 본부장 등 각 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이차전지 산업 핵심 분야인 배터리 제조와 안전관리 기술 개발 및 유통 체계 구축을 위한 환경친화적인 산업 기반 조성 등을 목표로 추진됐다. 3개 기관은 '사용 후 배터리 안전관리 및 재제조 유통순환 기술개발', '전기차 국민운행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기술 개발', '친환경 관련 산업 육성 및 첨단 검사 기술개발' 등 분야별 상호 협력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해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하고 배터리 전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 재생 원료 인증제,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 평가 등 주요 사업 육성을 위한 규정을 담은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나주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친환경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공고히 마련할 방침이다. 안상현 부시장은 "나주시는 혁신산업단 내 사용 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화센터와 현재 설계 중인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통합 환경정보센터 구축을 통해 사용 후 배터리 재제조, 재사

용, 재활용 산업의 집적화를 이룰 수 있는 이차전지 산업 중심지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해당 산업이 지속가능한 환경뿐 아니라 경제적 가치 창출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 확신하는 만큼 양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주=정종환기자



나주시가 지난 21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전남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나주시 제공>

신안 퍼플섬 '반월카페' 연매출 1억 핫플 등극

'컬러 마케팅' 관광객 급증...주민 소득 창출 기여



신안군 퍼플섬 반월도에 위치한 '반월카페'는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며 연 매출 1억원을 기록, 퍼플섬의 인기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신안군 제공>

신안군 퍼플섬 반월도에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며 연매출 1억원을 올리는 아담한 카페가 자리해 눈길을 끌고 있다. 23일 신안군에 따르면 2019년 4월 25일 건축면적 51.3㎡(약 15.5평) 규모로 신축된 반월카페는 반월-박지도로 연결하는 퍼플교 입구에 자리 잡고 있으며, 처음에는 무안카페로 시작했다. 반월도는 100여명 남짓한 주민이 살고 있는 작은 섬이지만 퍼플섬의 컬러 마케팅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관광객이 연 40만명으로 급증하면서, 2020년부터 반월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카페로 전환됐다. 이를 통해 관광 편의시설 제공뿐 아

니라 주민 소득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반월카페의 바리스타 이정자씨는 2020년 당시 6세 나이에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했다. 퍼플섬에서 목포까지 이른 오전부터 이어지는 도보, 배, 버스를 이용한 고된 여정을 통해 교육을 마치고, 현재 카페에서 따뜻한 차와 함께 반월도 주민들의 삶과 이야기를 공유하며, 관광객들에게 고향의 정겨움과 포근함을 선사하고 있다. 이는 퍼플섬의 재방문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바쁜 일상 속 지친 심신을 치유하고 휴식이 필요한 곳을 찾는다면 섬과 섬으로 둘러싸인 자연 그대로의 반월카페에서 차 한 잔의 여유와 담소를 나눌 수 있는 퍼플섬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안=양훈기자

목포시, 4월부터 출생기본수당 月 20만원 지급

市 10만원·道 10만원씩...매월 25일 지원

목포시는 23일 "출산장려와 양육비 경감을 위해 매월 20만원의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목포시 10만원과 전남도 10만원을 합친 총 20

0만원의 출생기본수당을 매월 25일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23일 '목포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하고, 3월 추경에 사업비 5억9천만원을 편성, 의회 심의를 거쳐 4월부터 지급

하되 올해 1-3월 미지급분은 소급해 지급하고 이후에는 매월 20만원씩을 지급할 예정이다. 당초 시에서는 재정여건을 감안해 매월 5만원씩 지원을 검토했으나, 출산장려하고 육아와 학령기까지 이어지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전남도-목포시 출생기본수당은 2024년 이후 출생아에게 1세부터 18세까지 지급되며, 양육 시기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출이 많은 학령기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급 대상은 출생아 및 보호자가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해서 전남도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 출생아 및 보호자 1명 이상이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 목포시에 신청이 가능하다. /목포=정해선기자

완도군, '2026 pre 국제박람회' 준비 박차

2028 해조류박람회 사전 행사...내년 5월2-7일 개최

완도군이 '2028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유치를 위한 사전 행사로 '2026 pre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3일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 20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6 pre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 보고회는 신우철 군수를 비롯해 부시장, 용역사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람회 기본 구상에 대한 용역사의 최종 보고와 함께 토론 및 질의응답,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2014년, 2017년 두 차례 열린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는 청정바다 완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해조류'를 테마로 해조류의 가치와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해조류 산업의 발전을 마련했다. 특히 2017년 박람회에는 94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했으며, 국가적으로는 해조류의 우수성이 알려지면서 길이 수출 효과 상품으로 떠오르는 등 수산물 수출

에도 기여했다. 이에 군은 해조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2028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유치를 위한 사전 행사로 '2026 pre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2026 Pre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는 '기후 리더, 해조류가 여는 바다의 미래'라는 주제로 2026년 5월2일부터 7일까지 완도군 해변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해조류 이해관, 주제관, 산업관 등 4개의 전시관과 국제 해조류 심포지엄, 수출 상담회 등을 개최하는 산업형 박람회가 될 예정이다. 완도군은 1월 말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해양수산 관계 기관·기업 등과 협력해 박람회를 준비할 계획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최종 보고회에서 제안된 의견과 부서별 세부 이행 과제를 꼼꼼하게 검토해 반영하고, 해조류산업과 지역 경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기자



무안군, 1인당 10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설 이후 300억 규모 긴급 추경 추진...지역경제 마중물 기대

무안군은 23일 "1229 여객기 사고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군은 민생회복 추경을 통해 1인당 10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무안군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되찾고 경제 회복 마중물 역할을 할 3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긴급 추경을 설 이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은 1229 사고 이후 꾸준히 요구되고 있는 민생회복에 대한 군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군의회와 협력해 3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은 1인당 10만원을 무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코로나19 시기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 일상과 지역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게 된다. /무안=김상호기자

추경예산 재원으로는 그동안 소비성 지출을 축소하고 교부세 확충 노력으로 추가 확보한 보통교부세 254억원을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쌀값 폭락에 따른 농가 소득보존 23억원, 초·중·고·대학생 입학축하금 11억원 등 신속집행 대상 예산의 60%인 2천2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고, 지역회복 발행 규모를 500억원까지 확대 발행하는 등 민생회복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군민 민생회복에 정책의 최우선을 두고 민생회복지원금을 계획했다"며 "이번 추경이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